

慨世歌



[해제]

이 가사는 남곡(南谷) 소학섭(蘇學燮, 1856~1919)의 작품이다. 남곡은 한말이 가까워오는 철종 7년에 전라북도 남원에서 출생, 연제(淵齋) 송병선(宋秉璿)의 훌륭한 제자로서 평생 학문에 정진하였고, 나라가 어수선하던 한말에는 우국지심이 남달리 강렬했던 선비이다. 당시 고종(高宗)이 빈천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고, 통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당산(堂山)에 들어 절식으로 망곡(望哭)하다가 10여 일만에 당년 64세로 타계한 인물이다. 그의 시문집으로 『남곡유고(南谷遺稿)』가 있다. 사후 40년이 지난 기해년(1959)에 엮어낸 한시문의 전적인데, <개세탄(慨世歎)>은 권3 잡저에 실려 전한다. <개세탄(慨世歎)>은 제목이 뜻하는 그대로 세상 되어가는 형편을 염려하여 통탄한 노래이다. 작품의 형태상 짜임은 2음보 1구 형성을 바탕으로 한 총 67구로서, 4·4조를 위주로 한 가사체 노래이다. 각 구에는 4언으로 된 한시문의 나열이 많은데, 이는 평소 작자의 몸에 베인 한시문의 작시 습성이 그대로 반영된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한학자로서 우리 고유의 전통 시가 전승에 관심을 두고, 이 같은 국문체 가사를 제작함은 자주의식이 투철한 당대 지식인의 흥미 있는 작시 사례로 주목된다.

[원문]

之否耕農之暇勤讀書籍以就作成之器庸常汝父
 不足效也凡事一以取法於古之聖賢無忘父之言
 卽近於孝嗟汝在胤

贈三女婿

嗟汝曰崔曰韓曰李三女婿二則生男吾已見之一
 則孕而未見是可少恨善教汝子遂成舅翁之願且
 汝與在胤結爲男妹我死之後無胥絕遠井井恤顧
 益復有男妹之敦誼

慨世歌

天地玄黃 肇判後에 古今人物 싱겨소나 人生이야
 만타마는 立德成功 몇실년고 虛妄하다 虛妄하다
 帝王富貴 虛妄하다 可憐하다 可憐하다 生民塗炭
 可憐하다 草堂春睡 峩야보니 古今世事 桑田碧海
 도야소나 우습도다 우습도다 蹙蹙靑盲 우습도다
 平生學業 안배업시 四面牆壁 向對하고 終日空堂
 臥起하야 咫尺不辨 恨歎하다 실푸도다 실푸도다
 男與白髮 실푸도다 小少功名 흔배업시 萬卷書冊
 頓忘하고 多年苦海 出沒하야 草木同情 衰老하다
 蜉蝣가튼 우리人生 一時功業 업실썬덴 飲食衣服
 보자흔들 堯舜世界 이무얼고 仁義道德 듯자흔들
 孔孟時節 아니로다 如許天地 廣大하나 一身難處
 니아인가 東望西顧 갈디업서 號于中野 迍邐하다
 何是天下 紛競하고 萬國風濤 浩蕩하네 寒心하다
 寒心하다 世無管仲 寒心하다 우리 禮義東方 五百年
 衣冠文物 馱舌 左衽이되고 우리 遠近同胞 億萬民

慨世歌

父母妻子 飢寒塗炭에 빠져소다 嘻嘻乎 噫噫乎라
七確山河春秋戰國時가 五季風雨朝暮混塵世라
宇宙에 비겨서서 一場太息 支離하고 楚水吳山
질을너머 獨樂園中 차자가니 自古雲林 是非업다
箕山을 바라보니 巢父許由 간디업고 三更明月
홀로쓰고 首陽을 불너보니 伯夷叔齊 어디가고 萬古清風
나마분다 어이허리 어이허리 悵望千秋 一灑淚요
蕭條異代 不同時라 말씨어다 말씨어다 悠悠蒼天아
此何人哉오 獨樂園이 조타하나 너무과이
孤寂하다 不如太平 同樂地라 仰天痛哭 一問兮여
堯舜孔孟 언제볼게

棲息歌

古南山數疊峰知我同我者松竹與雉兔松竹豈能
泄我泄我者雉兔雉免且莫輕輕出林間恐或虞人子知
戲呈金石汀

[현대역]

개세가

검은 하늘 누런 땅이 갈라져 생긴 뒤에 (*天地玄黃肇判後 : 천지 현황 조판후) 고금의 인물들이 끊임없이 생겼도다. 이런 인생 많지만은

덕을 쌓고 성공한 이 헤아리면 몇이런고. (*立德成功 : 입덕 성공) 허망하고 허망하다, 제왕 되고 부귀한들 모두가 허망하다. (*帝王富貴虛妄 : 제왕 부귀 허망) 가련하고 가련하다, 도탄에 허덕이는 백성들 가련하다. (*生民塗炭可憐 : 생민 도탄 가련)

초당에 잠들었던 봄잠을 깨고 보니, (*草堂春睡 : 초당 춘수) 고금의 세상일이(*古今世事 : 고금 세사) 허무하게 변하여서 상벽(桑碧)이 되었구나. (*桑田碧海 : 상전 벽해) 우습고도 우습구나, 절름거린 당달 봉사 우습도다. (*蹠 / 靑盲 : 벽벽 청맹) 평생학업 안바 없이 사면엔 담과 벽을 대하고서, (*四面牆壁向對 : 사면 장벽 향대) 온종일 빈집에서 한가롭게 지내면서 (*終日空堂臥起 : 종일 공당 와기) 지척도 분별 못해 한탄된다. (*咫尺不辨恨歎 : 지척 불변 한탄)

슬프고 슬프도다. 남아로서 백발이 슬프도다. 젊어서 이론 공명 쌓은바 별로 없이, 만권이나 읽은 서책 갑자기 잊고 나서, (*萬卷書冊頓忘 : 만권 서책 둔망) 끝없는 괴로움에 여러 해 출몰하여, (*多年苦海出沒 : 다년 고향 출몰) 이름도 남김없이 초목처럼 늙어간다. (*草木同情衰老 : 초목 동정 쇠로. “情”은 “腐”의 오기임)

하루살이 다름없는 무상한 우리 인생, (*蜉蝣 : 부유) 한때라도 큰 공로를 이루지 못했다면, 음식 의복 보자 한들 태평한 요순세계 이미 다 멀었으며, 인의의 인륜도덕 듣자고 하여본들, 공자와 맹자시절 그때가 아니로다. 저와 같은 하늘과 땅 넓고도 크다지만, (*如許天地廣大 : 여허천지 광대) 한 몸의 어려움이 바로 이것 아니런가. (*一身難處 : 일신 난처) 동서를 바라보고 돌아본들 갈데 없어, (*東望西顧 : 동망 서고) 들에서 부르짖고 머뭇하며 서성인다. (*號于中野迢迢 : 호우중야 둔전) 어찌하여 세상천하 시끄럽게 다투는고. (*何是天下紛競 : 하시 천하 분경) 만국에 일령이는 풍랑만 호탕하네. (*萬國風濤浩蕩 : 만국 풍도 호탕) 한심하고 한심하다.

세상에 관중 같은 우정 없어 한심하다. (*世無管仲寒心 : 세무관중 한심) 예의 깊은 우리 동방, 오백년 예의바른 열렸던 문화문물, 외국인이 지껄이는 미개한 상태 되고, (*缺舌左衽 : 격설 좌임) 원근의 우리 동포, 억만 백성 부모처자, (*億萬民父母妻子 : 억만민 부모 처자) 기한에 시달리는 도탄에 빠졌도다.

애구머니나! 애통하여라. (*嘻 / 乎噫 / 乎 : 희희호 희희호) 칠국(七國 : 진(秦) · 초(楚) · 제(齊) · 연(燕) · 조(趙) · 위(魏) · 한(韓))이 웅거하던 산하 춘추 전국시대가, (*七雄山河春秋戰國時 : 칠웅 산하 춘추 전국시) 비바람 몰아치던 후오대(後五代 : 후당(後唐) · 후량(後梁) · 후주(後周) · 후진(後晉) · 후한(後漢))에 아침저녁 혼잡한 티끌세상이 (*五季風雨朝暮混塵世 : 오계 풍우 조모 혼진세) 이 세상 우주 안에 비기어 있으므로, 한바탕 큰 한숨만 부질없이 지루하고, (*一場太息支離 : 일장 태식 지리) 초나라와 오나라의 동남 산수 길을 넘어, (*楚水吳山 : 초수 오산) 사마온공(司馬溫公) 즐겨하던 독락원 찾아가니, 자고로 숨어살던 운림에는 시비 없다. (*自古雲林是非 : 자고 운림 시비)

은자(隱者)가 은둔하던 기산을 바라보니, 욕심 없는 소부 허유 간데없고, 한밤중에 밝은 달만 홀로 떠 비취 있고, (*三更明月 : 삼경 명월) 수양산을 불러보니, 은(殷)나라의 백이숙제 어디로 가버리고, 오랜 세월 변함없이 청풍만 남아 분다. (*萬古淸風 : 만고 청풍)

어찌 하리 어찌 하리, 시름없이 바라보는 오랜 세월 한 가닥 눈물이요, (*悵望千秋一灑淚 : 창망 천추 일쇄루)

호젓한 다른 세대 같이할 때 아니로다. (*蕭條異代不同時 : 소조 이대 부동시) 말 것이라 말 것이라, 유
유한 푸른 하늘이여 이는 곧 누구일꼬. (*悠 蒼天此何人哉 : 유유 창천 차 하인재)
즐거움을 노래하던 독락원 좋다 하나, 너무 과히 고적하다. 태평하게 함께 즐길 곳만 같지 못하도다. (*
不如太平同樂地 : 불여 태평 동락지)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여 묻겠노라. (*仰天痛哭一問兮 : 양천 통곡
일문혜) 요순 공맹 태평시대 어느 때에 볼 것인가.

본자료는 행정안정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담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